

##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서의 Holland 흥미 유형별 내적·맥락적 장벽 요인의 효과모형검증연구\*

천 석 준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적용하여 Holland 흥미유형에 따른 한국 대학생의 희망 진로 분야의 맥락적 그리고 내적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N=574명)이 지각하고 있는 맥락적 장벽의 하위요인을 구명하고, Holland의 RIASEC 유형으로 구분한 각각의 진로분야별로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진로결정 등의 변인에 진로장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맥락적 장벽은 '물질적 제약', '사회적 영향', '지역 차별'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Holland 유형의 모든 진로분야에서 맥락적 장벽의 지각이 진로결정 변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분야에 따라 맥락적 장벽의 지각과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그리고 진로결정 간의 경로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진로장벽과 맥락적 장벽을 진로장벽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Holland 진로유형에 따라 진로결정 변인들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맥락적 장벽, 내적 진로장벽, Holland RIASEC 진로유형,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진로결정

\* 본 논문은 2008년 3단계 두뇌한국 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학진학률은 84%에 육박한다(2007년 통계청 기술 통계조사). 따라서 대다수의 청소년에게 대학 시기는 공식적인 학제의 마지막 단계가 되며, 장래의 직업을 준비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된다. 그러나 현상학적으로는 전체 대학 졸업생의 24%가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진로결정을 지연하거나, 자신의 학력에 적합하지 않은 하향취업을 선택하는 등(2007년 통계청 기술 통계조사), 진로결정에서 많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이론은 개개인이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Gybers, Heppner, & Johnston, 2003).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인은 진로결정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맥락적 요소들을 진로장벽으로 지각하며(Luzzo, 1993, 1996; McWhiter, 1997), 이러한 지각에 따라 자신의 진로목표를 타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ttfredson, 1981). 따라서 개인의 진로결정과정을 개인적 심리적 특성의 차원으로만 다루어 온 관점만으로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Bandura(1986)는 개인의 행동발달이 개인 내적 특징들과 그를 둘러싼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발전한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Brown, & Hackett, 1994, 2000)은 개인의 복잡한 진로결정과정을 개인의 인지·심리적 변인과 같은 내적 특성 뿐 아니라 이를 제한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는 맥락적 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함으로써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맥락적

장벽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Lent, Brown, & Hackett, 2000).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맥락적 진로장벽의 영향력은 진로결정에의 상대적인 접근성을 기준으로 배경 맥락적 요인과 동시적 환경요인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배경 맥락적 진로장벽-학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개인이 경험한 지지나 좌절, 또는 직업적 역할 모형 등-은 특정 진로분야에서의 발달과 관련된 이전 학습경험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관여한다. 반면 동시적 환경요인으로서의 맥락적 진로장벽은 실질적인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사회인지진로이론은 맥락적 장벽의 영향력이 진로결정단계에 따라 다르게 기능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Brown, & Hackett, 1994)은 실질적인 진로결정과정과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복잡한 모형으로 설명한다. 이와 관련된 진로결정모형에 따르면, 특정 진로분야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해당 분야의 진로흥미를 발달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진로흥미를 완전 또는 부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 동시적 환경요인으로서의 맥락적 진로장벽은 자기효능감과 별도로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진로흥미에서 진로결정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중재할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가정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그 적합성을 지지받아 왔다(Fouad, Smith, & Zao, 2002; Gore & Leuwerke, 2000; Lent et al., 2001, 2003). 그러나 실제적인 진로결정과정에서 맥락적 진로장벽이 자기효능감과 무관하게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Lent et al., 2001; Lent, Brown, 2003). 사회인지진로이론과는 달리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6)은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 맥락적인 영향력은 반드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할 것이라 가정한다. 이 두 이론을 토대로 맥락적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의 직접 경로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경로를 비교 검증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인지이론의 가정이 더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Lent et al., 2001; Lent, Brown, 2003). 그러나 맥락적 장벽의 지각이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Tang, Fouad, & Smith, 1999)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적합성과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는 맥락적 진로장벽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틀 안에서 맥락적 장벽의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된다. 첫째,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특정 진로분야마다 고유의 진로결정과정을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이학, 공학, 수학, 과학기술 등의 한정된 진로분야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왔다. 따라서 일부 진로영역에 국한된 연구 결과를 모든 진로분야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둘째,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주로 서구 문화권의 정체성을 지닌 집단을 대상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이를 검증한 연구들 또한 주로 서구 문화권의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이 속한 문화권에 따라 지각된 맥락적 장벽이 진로결정 관련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왔다(Lent et al., 2003). 특히 집단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가족 구성원이나

연장자가 개인의 진로결정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어 왔다(Lent et al., 2000; Tang, Fouad, & Smith, 1999). 선행 연구(Leong, 1993; Tang, Fouad, & Smith, 1999)에 따르면, 서구 문화권과는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진로결정과정에서 흥미나 적성과 같은 요인들보다 사회적 지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거나, 진로흥미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이한 연구결과들 또한 맥락적 장벽의 지각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명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진로분야나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이 가정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Brown, Lent, & Gore, 2000; Fouad, Smith, & Zao, 2002; Gore & Leuwerke, 2000).

한편, 일반적으로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결정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되며, 자신감이나 동기, 직업정보 부족 등의 내적 진로장벽과 차별대우나 가난과 같은 맥락적 장벽 등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해왔다(Crites, 1969).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된 진로장벽을 적용한 선행 연구들은 내적 진로장벽과 맥락적 진로장벽이 진로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경로들 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하였다는 한계를 지녀왔다(McWhirter, 199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인지진로이론은 내적 진로장벽으로부터 맥락적 진로장벽의 개념을 구분하고, 진로장벽의 개념을 개인의 진로결정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맥락적 변인들로 한정할 것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맥

략적 장벽의 측정만으로도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Lent, Brown, & Hackett, 2000). 내적 진로장벽으로 분류되어 온 변인들이 진로결정의 과정적 측면에 관여하는 자기효능감과 개념적으로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Swanson & Woitke, 1997). 그러나 내적 진로장벽에 상응하는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정의 일반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진로분야에 대한 자기효능감이나 진로흥미 등의 변인과 개념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맥락적 진로장벽만으로 진로장벽을 설명하는 기존의 사회인지진로이론은 내적 진로장벽이 특정 진로분야에서의 진로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로분야에서의 진로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경로들을 통해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Gottfredson, 1981; Luzzo, 1996; Creed, Patton, & Bartrum, 2004) 개인 내적진로장벽과 맥락적 장벽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여 각각이 진로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밝히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검증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진로분야에 따른 진로결정과정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맥락적 진로장벽에 대한 사회인지진로이론과 사회인지이론의 모형에 대한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내적 진로장벽과의 상관 아래에서 맥락적 장벽의 지각이 개인이 추구하는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진로분야에서의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및 진로결정 등의 변인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다양한 진로분야별 진로결정과정을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Holland(Holland, 1985)의 RIASEC 유형을 적용하여 각 Holland 유형으로 대표되는 진로분야에서의 진로결정과정에 있어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핵심 가설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Holland의 RIASEC 유형은 진로흥미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나, 특정 진로분야에서의 진로흥미와 자기효능감이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Holland, 1985), Holland 유형 진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개발, 사용되어 왔다(Tracey, 1997; Rottinghaus, Larson, & Borgen, 2003). 그리고 이와 같은 도구들이 각기 다른 진로분야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잠재적 특성을 구별하는데 용이하며, Holland 유형 진로흥미와의 관계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기본가정에 부합된다는 것이 입증됨에 따라, Holland 유형으로 측정한 진로결정관련 변인들을 적용하면 다양한 진로분야별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기본 가정을 설명하기에 좀 더 용이하다는 증거들이 축적되어 왔다(Betz, Harmon, & Borgen, 1996; Lindley, 2005).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지진로이론과 사회인지이론의 모형 중 진로결정에 대한 맥락적 진로장벽이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모형은 무엇인가? 둘째, Holland의 RIASEC 유형에 따라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진로결정 및 맥락적 장벽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셋째, 맥락적 장벽과 내적 진로장벽은 진로결정변인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가? 만약 그렇다면 Holland의 RIASEC 유형에 따라 그와 같은 영향들은 달라질 것인가?

## 연구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574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254명(44.3%)과 여자 320명(55.7%)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271명(47.2%), 2학년 160명(27.9%), 3학년 78명(13.6%), 그리고 4학년 65명(11.3%)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공에 따른 표집의 분포 상에 차이는 없으며, 평균 연령은 20.90세( $SD = 2.676$ )였다.

### 연구절차

연구 참가자들에게 인구학적 질문과 변인 측정도구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연구 참가자 모집, 자료 수집, 자료 관리가 이루어 졌다.

### 측정도구

#### Holland 유형 자기효능감과 진로흥미 측정 도구

본 연구는 Holland 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진로흥미를 측정하기 위해 직업선호도검사(행동과학연구소, 2001)에서 유능감 및 활동으로 명명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별 Holland 유형마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5문항씩 총 30문항, 진로흥미 척도는 7문항씩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문항들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관련된 자기효능감과 진로흥

미 또한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 자료에서의 진로자기효능감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5였으며, 진로흥미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4이었다.

#### 맥락적 장벽 측정도구

본 연구는 Lent, Brown와 Brenner 등(2001)이 개발한 ‘맥락적 지지·장벽 척도’ 36문항 중 맥락적 장벽과 관련된 21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고 있는 맥락적 장벽의 크기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번안의 과정에서 본 척도의 개발 목적과 의미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가 수행되었다. 먼저 상담심리학과와 심리학 석사 2인이 독립적으로 원 척도를 우리말로 번안한 후, 석사 과정생 4인이 두 번안을 비교하여 원 척도의 의미를 좀 더 잘 반영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를 다시 영어로 재번역하여 영어와 한국어 모두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원척도와 동의성을 평가토록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번안한 척도와 원척도 상에 내용과 의미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Holland RIASEC 전 유형에 대해 한국 대학생이 지각하는 맥락적 장벽의 하위요소를 구명하기 위한 목적 하에 번안 과정 중 한국 문화에서는 원 척도의 하위요소중 하나인 인종차별이 보편적이지 않으므로 출신지역에 의한 차별로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였다.

번안 작업을 마친 후 미국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가 다양한 전공의 한국 대학생 집단에도 적용가능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KMO(Kaiser-Meyer-Olkin)의 MSA는  $.796 > \alpha = .5$

이며,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  $\chi^2(210, 574) = 3544.625, p < .001$ 에서 모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계속 진행하였다. 주축요인 방식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아이겐 값과 스크리 검증 결과 맥락적 장벽의 하위 요인은 3개 또는 4개로 나타났다. 이는 사각회전법을 사용한 결과에서도 동일하였다. 문항선정의 기준으로 삼은 요인부하량 .50이상, 요인 간 부하량의 차이 .10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두 문항을 제거한 후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두 문항을 제거한 이후에도 하위요인을 3개로 설정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4개로 설정한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이유가 요인의 개수를 줄이는데 있으므로 본 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맥락적 장벽은 3개의 하위요인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의 구조계수행렬(structure matrix)이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맥락적 장벽의 하위 요인은 ‘물질적 제약(11문항)’, ‘사회적 영향(4문항)’, 그리고 ‘차별대우(4문항)’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8, .74, .73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맥락적 장벽이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영향’, ‘경제적 제약’, ‘교육상의 어려움’, 그리고 ‘성별·인종차별’ 등의 4개의 하위요인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Lent et al., 2001), 이를 본 연구에서 밝혀진 3개의 하위요인과 비교하면 기존 연구의 ‘경제적 제약’과 ‘교육상의 어려움’ 두 요인은 본 연구의 ‘물질적 제약’ 요인에 속하며, ‘가족과 친구들로부터의 영향’은 ‘사회적 영향’에, ‘성별·인종차별’은 ‘지역차

별’에 상응하였다. 각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동일하며, 서로 상응하는 하위 요인들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척도를 본 연구자료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은 ‘물질적 제약’, ‘사회적 영향’, 그리고 ‘차별’ 등의 하위 요인을 맥락적 장벽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1로 보고되었다.

### 진로결정 측정도구

진로결정은 참가자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전공을 기입한 것으로써 이후 간편 진로코드 분류표(안창규, 안현의, 2003)에 따라 Holland 유형별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 집단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의 75% 이상이 대학 1, 2학년생으로 대다수가 실질적인 직업선택의 단계에 속해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들에게 있어 특정 직업과 관련된 진로결정에 대한 질문은 즉각적인 현실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응답이 모호할 가능성이 크다(Lindley, 2005).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실질적인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상대적인 접근성을 기준으로 진로결정단계를 나누고, 단계별로 진로결정과정의 주요 변인들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 대상 집단의 실제적인 진로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변인을 진로결정변인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대상 집단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진로결정은 전공결정이라 볼 수 있다. 대학 전공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적성, 흥미, 자기개발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로의 진로를 추구하려는 동기를 형성할 뿐 아니라, 전공결정과 같은 학업에 관련된 진로결정과정과 실제 직업결정과정의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M	SD
현실형 자기효능감	574	9.62	3.05
탐구형 자기효능감	574	9.69	3.01
예술형 자기효능감	574	9.40	2.78
사회형 자기효능감	574	11.65	2.34
진취형 자기효능감	574	11.22	2.18
관습형 자기효능감	574	11.65	2.46
현실형 진로흥미	574	12.50	3.66
탐구형 진로흥미	574	13.20	4.21
예술형 진로흥미	574	16.51	3.42
사회형 진로흥미	574	18.05	2.60
진취형 진로흥미	574	17.44	3.39
관습형 진로흥미	574	15.56	3.54
현실형 진로결정	574	.29	.45
탐구형 진로결정	574	.43	.49
예술형 진로결정	574	.21	.40
사회형 진로결정	574	.36	.48
진취형 진로결정	574	.42	.49
관습형 진로결정	574	.28	.44
물질적 제약	574	29.63	5.94
사회적 영향	574	7.76	2.84
차별	574	7.35	2.83
우유부단한 성격	574	11.49	3.60
직업정보 부족	574	18.22	5.44
자기명확성 부족	574	10.15	4.15
진로결정필요성인식 부족	574	7.01	3.20

의 성격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주로 대학에서의 전공을 진로결정 변인으로 설정해왔다(Lent, Brown, Nota, &

Soresi., 2003).

본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된 Lent 등의 연구(2003)는 특정 진로분야를 제시하고, 각각의 진로분야와 관련된 Holland 유형 자기

효능감과 진로흥미 및 지각한 맥락적 진로장벽을 측정하였다. 이후 진로결정변인인 해당 분야의 진로대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관련된 진로분야에 대한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그리고 지각된 맥락적 장벽의 측정도구에 이미 응답한 경험이 진로결정변인에 응답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가 발생하였다(Lindley, 200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진로결정변인을 참가자들 자신이 추구하는 전공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채점은 더미 코딩 방식으로 각각의 Holland 유형에 해당하는 전공분야 이면 1로, 아닐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 내적 진로장벽 측정도구

탁진국과 이기학(2003)이 개발한 총 22문항으로 구성된 ‘한국대학생 진로결정 장애검사’를 사용하여 내적진로장벽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내적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5개의 하위요인, 22문항으로 구성된 이 검사에서 외적장애 요인(4문항)을 제외하고 내적 진로장벽과 관련된 직업정보부족 요인(6문항), 자기명확성 부족요인(4문항), 우유부단한 성격요인(4문항), 필요성인식 부족 요인(4문항)의 4개 요인 1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내적 진로장벽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척도 신뢰도 계수는 하위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가 .66에서 .89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9로 보고되었다(이상희, 2003). 본 연구 자료에서 보고된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각각 .89(직업정보부족), .88(자기명확성 부족), .82(우유부단한 성격), .82(필요성인식 부족)이

며,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 분석 방법

맥락적 장벽의 하위 요인들을 산출하기 위해 SPSS 15.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MOS 5.0을 사용한 경로 분석을 통해 Holland 각 흥미유형별로 지각된 맥락적 장벽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흥미의 매개효과와 내적·맥락적 장벽의 역할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 결 과

### 모형검증을 위한 기초통계분석 및 진로결정 변인들 간의 상관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은 사회형( $M=11.65$ ,  $SD=2.34$ )과 관습형( $M=11.65$ ,  $SD=2.46$ )이 가장 높았으며, 예술형 자기효능감 평균이 가장 낮았다( $M=9.40$ ,  $SD=2.78$ ). 진로흥미의 평균은 사회형이 가장 높고( $M=18.05$ ,  $SD=2.60$ ), 현실형이 가장 낮았다( $M=12.50$ ,  $SD=3.66$ ). 진로결정은 탐구형 평균이 가장 높고( $M=.43$ ,  $SD=.49$ ), 예술형이 가장 낮았다( $M=.21$ ,  $SD=.40$ ). 맥락적 진로장벽으로 포함된 변인의 기술통계치는 물질적 제약( $M=29.63$ ,  $SD=5.94$ ), 사회적 영향( $M=7.76$ ,  $SD=2.84$ ), 차별( $M=7.35$ ,  $SD=2.89$ )로 나타났다. 내적 진로장벽 하위 요인들의 기술통계치는 우유부단한 성격( $M=11.49$ ,  $SD=3.60$ ), 직업정보 부족( $M=18.22$ ,  $SD=5.44$ ), 자기명확성

부족( $M=10.15$ ,  $SD=4.15$ ), 그리고 진로결정필요성 인식 부족( $M=7.01$ ,  $SD=3.20$ )으로 나타났다.

Holland의 RIASEC 유형별로 진로결정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진로결정, 맥락적 장벽의 세 가지 하위요인 및 내적 진로장벽의 네 가지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Holland 유형별로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그리고 진로결정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맥락적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나 내적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과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진로결정의 유의미한 상관계수는 Holland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Holland 흥미유형별 진로결정과정에서의 맥락적 장벽,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진로결정의 관계

사회인지진로이론이 가정하는 맥락적 진로장벽의 지각과 특정 진로분야에 대한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그리고 진로결정 변인들 간의 경로는 그림 1에서 맥락적 진로장벽과 자기효능감의 직접 경로를 제외한 것과 같다. 본 연

구는 맥락적 진로장벽이 이들 진로결정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모형(사회인지진로이론)과 사회인지이론의 맥락적 진로장벽과 자기효능감의 직접 경로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대안모형을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맥락적 진로장벽은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물질적 제약’, ‘사회적 영향’, ‘지역차별’의 하위요인을 지니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Holland 흥미유형에 따라 진로결정과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본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 검증은 각 Holland 유형별로 총 6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TLI(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의 값으로 판단하였다.  $\chi^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할 뿐 아니라 ‘이론모형이 전집자료에 완벽하게 부합된다’는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데 비해(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위의 지수들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료에 잘 부합하고 간명한 모형을 선호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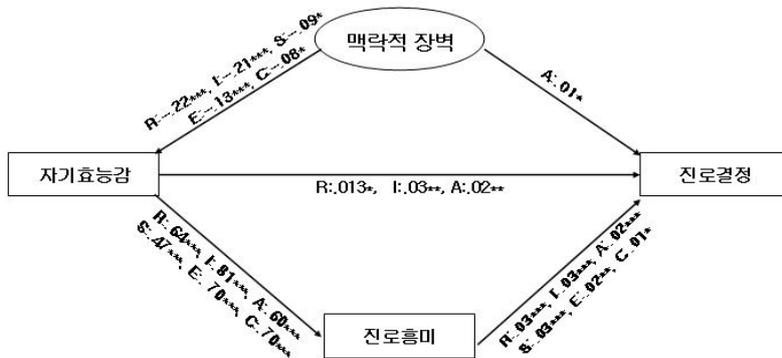


그림 1. Holland 6 유형에 적용한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의 맥락적 장벽,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진로결정 경로. Holland 유형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계수만 기입함

\*  $p < .05$ , \*\*  $p < .01$ , \*\*\*  $p < .001$ . R: 현실형, I: 탐구형, A: 예술형, S: 사회형, E: 진취형, C: 관습형

이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의 경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홍세희, 2000), RMSEA의 경우 .05 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합한 적합도로 본다(홍세희, 2001). 기본 모형과 대안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이 가정하는 변인들 간의 경로모형을 적용한 기본모형의 경우,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에서만  $\chi^2$  검증의 유의도수준이 0.05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론 모형이 전집 자료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술형, 사회형, 관습형의 TLI 값은 .967(관습형)에서 1.026(예술형)으로 매우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반면 현실형, 탐구형, 진취형의 TLI 값은 .837(현실형)에서 .889(탐구형)의 범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지닌다고 보

기 힘들다. 예술형과 사회형의 경우, TLI 값이 0에서 1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였지만 이는 TLI 지수 자체가 지닌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수정한 지수인 CFI 값의 경우 .938(현실형)에서 1.000(예술형, 사회형)으로 모든 Holland 유형이 매우 높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기본모형의 RMSEA 값은 .000(예술형, 사회형)에서 .030(관습형)의 범위 내에 있었으며, 예술형, 사회형, 관습형의 기본모형들의 RMSEA 신뢰구간이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추정된 RMSEA 값에 오차가 적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표 2에 제시된 Holland 각 유형별 두 모형의  $\chi^2$  차이값을 보면 모든 유형의 자유도의 차이값은 1이며, 현실형, 탐구형, 진취형에서만  $\alpha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TLI, CFI, RMSEA값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이들 유형에서는 대안모형이 보

표 2. Holland 유형 별 기본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Holland 유형	모형	$\chi^2$	df	P	CFI	TLI	RMSEA	$\chi^2$ difference
현실형	기본모형	34.262	8	.00	.938	.837	.076	21.495*
	대안모형	12.767	7	.078	.986	.959	.038	
탐구형	기본모형	28.025	8	.00	.958	.889	.066	22.673*
	대안모형	5.352	7	.617	1.000	1.010	.000	
예술형	기본모형	4.523	8	.807	1.000	1.026	.000	0.158
	대안모형	4.365	7	.737	1.000	1.022	.000	
사회형	기본모형	7.910	8	.442	1.000	1.001	.000	5.68
	대안모형	2.230	7	.946	1.000	1.050	.000	
진취형	기본모형	24.411	8	.002	.947	.862	.060	14.676*
	대안모형	9.735	7	.204	.991	.974	.026	
관습형	기본모형	12.043	8	.149	.987	.967	.030	4.327
	대안모형	7.716	7	.358	.998	.993	.013	

다 적합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chi^2$  검증과 모형 적합도 지수값을 통해 기본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예술형, 사회형, 관습형의 경우,  $\chi^2$  차이값이  $\alpha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모형과 대안모형 간에 같은 정도의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본모형의 핵심적인 가정인 맥락적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의 직접 경로는 오직 예술형에서만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beta = .021, p < .05$ ), 예술형을 제외한 Holland 유형은 사회인지이론을 기반으로 한 대안모형이 변인들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대안모형에서 예술형은 맥락적 진로장벽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직접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술형은 기본모형에 더 잘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형에는 기본모형을, 예술형을 제외한 Holland 유형에는 대안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각각의 Holland 유형별 맥락적 진로장벽,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진로결정간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먼저 자기효능감과 진로흥미의 경로계수는 .47(사회형)에서 .81(탐구형)이었다. Lent 등의 연구(2003)에서도 두 변인간의 상관계수는 평균적으로 .5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흥미의 변량 중 27%가 자기효능감에 의해 설명됨을 의미한다. 진로흥미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매개하는 방식은 Holland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탐구형과 예술형의 경우 진로흥미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으로써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존재했지만(각각  $\beta = .03, \beta = .02, p < .01$ ), 현실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에서는 진로흥미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관계

를 완전 매개함으로써 직접경로가 존재하지 않았다. Lent 등의 연구(2003)에서는 맥락적 진로장벽과 자기효능감의 직접 경로가 예술형과 탐구형에서만 유의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자기효능감에 의해 완전 매개되었으며, 맥락적 장벽과 자기효능감의 경로계수는 -.08(관습형)에서 -.22(현실형)의 범위에 있었다.

#### 내적 진로장벽과 맥락적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 검증

다음으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이 가정하는 바와 같이 내적 진로장벽을 자기효능감 등의 인지적 개인변인으로 함께 묶어 설명하는 것 보다는, 각각이 진로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밝히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는 전제를 검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Holland 유형에 따라 이들 진로장벽이 영향을 주는 경로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개별 Holland 유형별로 맥락적 진로장벽의 영향을 설명하기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모형-예술형은 맥락적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의 직접경로만 존재하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을 그 밖의 Holland 유형은 맥락적 진로장벽이 반드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다는 사회인지이론의 모형을 적용하였음-에 맥락적 진로장벽과의 상관을 맺고 있는 내적 진로장벽(Gottfredson, 1981)을 포함시키도록 수정하여 검증해 보았다. Holland 흥미유형에 따라 진로결정과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정모형의 검증절차는 각 Holland 유형별로 총 6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TLI(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의 값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수정모형이 Holland의 RIASEC 전 유형에 적용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로 평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수정모형은 진취형의 경우 모형 적합도 지수의 값이 다소 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Holland 유형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좋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기본모형과 수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수치를 비교하면 Holland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기본모형이 대체적으로 근소하지만 더 좋은 적합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본모형과 수정모형의  $\chi^2$  차이 검증시 모든 Holland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5$ ). 이는 경로계수가 더 많은 수정모형이 기본모형보다 적합도가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는 내적 진로장벽과 맥락적 진로장벽을 모두 포함시킨 수정모형이

진로결정변인들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의 수정모형을 살펴보면 모든 Holland 유형에서 내적 진로장벽은 맥락적 진로장벽과 높은 수준의 상관을 맺고 있었다. 이는 한 쪽 측면의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있는 개인은 다른 쪽 측면의 진로장벽 또한 지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내적 진로장벽과 맥락적 진로장벽의 상호작용의 성격이 Holland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세밀한 방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형은 맥락적 진로장벽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나, 내적 진로장벽은 맥락적 진로장벽과의 상관 아래서만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탐구형은 내적 진로장벽만이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형과 진취형에서는 그 영향

표 3. Holland 각 유형에 내적 진로장벽을 적용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값

Holland 유형	모형	$\chi^2$	df	CFI	TLI	RMSEA	$\chi^2$ difference
현실형	기본모형	12.767	7	.986	.959	.038	78.951*
	수정모형	91.718	30	.947	.903	.060	
탐구형	기본모형	5.352	7	1.000	1.010	.000	67.15*
	수정모형	72.502	30	.964	.935	.050	
예술형	기본모형	4.523	8	1.000	1.026	.000	68.35*
	수정모형	72.837	30	.961	.928	.050	
사회형	기본모형	2.230	7	1.000	1.050	.000	71.613*
	수정모형	76.154	30	.956	.919	.052	
진취형	기본모형	9.735	7	.991	.974	.026	128.446*
	수정모형	138.181	30	.907	.830	.079	
관습형	기본모형	7.716	7	.998	.993	.013	57.346*
	수정모형	65.062	30	.966	.937	.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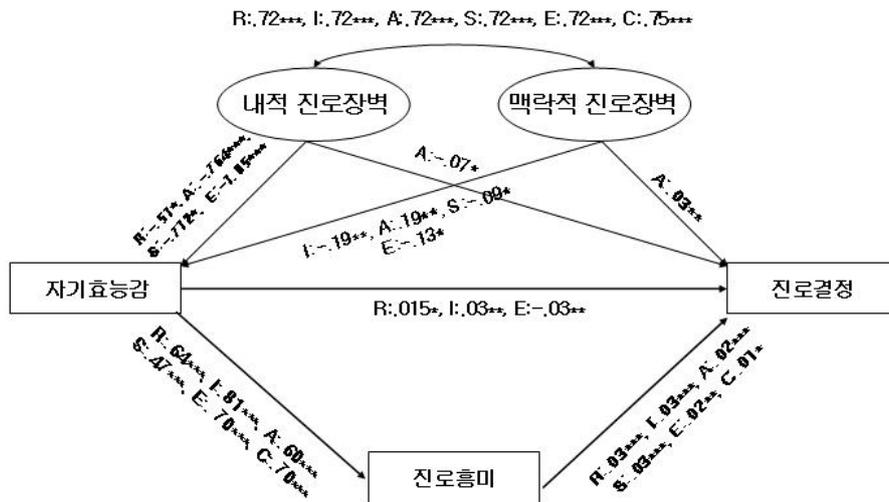


그림 2. Holland 6 유형에 따른 내적 진로장벽과 맥락적 진로장벽,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그리고 진로결정 경로. Holland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계수만 기입함

\*  $p < .05$ , \*\*  $p < .01$ , \*\*\*  $p < .001$

R: 현실형, I: 탐구형, A: 예술형, S: 사회형, E: 진취형, C: 관습형

력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내적 진로장벽과 맥락적 진로장벽 모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다. Holland 6 유형 중 유일하게 예술형은 내적 진로장벽과 맥락적 장벽 모두 자기효능감의 형성과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맥락적 장벽은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3, p < .01$ ).

기본모형에 내적 진로장벽을 포함시킨 수정모형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진로흥미, 진로흥미와 진로결정의 관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본모형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직접경로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에서 유의미하였는데 반해, 수정모형에서는 현실형과 탐구형, 및 진취형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취형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3, p < .01$ ). 이러한 결과는 특정 분

야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진로 결정을 이끈다는 일반적인 가정에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 결과 해석 및 논의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그 적합성을 지지받아 왔으나, 그 적합성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한정된 진로분야나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동시에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맥락적 진로장벽의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구명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진로분야에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적용 가

능성을 검증함으로써 맥락적 진로장벽이 진로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진로장벽의 개념을 맥락적 장벽으로 국한시켰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내적 진로장벽도 포함시킴으로써 이 두 진로장벽이 서로 상관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 두 장벽이 진로결정과정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그 의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살펴본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이 국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적용가능성은 일부 선행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바 있지만 이들 연구는 개념적으로 진로결정과정에 관여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를 지니는 자기효능감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진로흥미의 형성 및 진로결정에 연결시키거나(손은령, 손진희, 2005; 양난미, 2006), 일부 제한된 진로분야만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는 한계(유나현, 박용두, 이기학, 2007)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기본 입장에 근거하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이 이론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또한 Holland의 RIASEC 유형으로 진로분야들을 구분하고, 각각에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적용한 결과, 이 이론이 모든 진로유형에 적용 가능성이 검증되었으며 맥락적 장벽의 지각이 개인의 진로결정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한정된 진로

영역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이 보다 다양한 진로분야에서의 진로결정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함을 입증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또한 서양 문화권에 속한 집단과 동양 문화권에 속한 집단 간에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인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Leong, 1993)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한 Lent 등의 선행연구(2003)와 부분적으로 불일치하였다. Lent 등의 연구(2003)에서는 모든 Holland 유형별 진로결정과정에서 맥락적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의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맥락적 진로장벽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도 오직 예술형과 관습형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예술형 진로분야로 제한되기는 하였지만 맥락적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나머지 Holland 유형에서는 맥락적 진로장벽이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사회적 영향 등을 포함한 맥락적 장벽의 지각이 진로결정에 보다 직접적이며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Lent et al., 2000)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이 속한 문화권에 따라 진로결정과정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이론의 전제(Lent et al., 2003)를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문화차가 개인의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좀 더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셋째, 본 연구는 맥락적 장벽의 지각과 진로결정의 경로에 있어서의 연구들 간의 불일치가 나타난 원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분야에 따라 맥락적 진로장벽의 지각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Holland 유형 진로분야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예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는 맥락적 진로장벽의 지각이 반드시 자기효능감을 완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었지만, 예술형 진로분야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맥락적 장벽의 지각이 진로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정 진로분야마다 고유의 진로결정과정을 지닐 것이라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가정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내적 진로장벽과 맥락적 진로장벽을 구분하여 각각의 진로장벽이 Holland 유형별 진로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적 진로장벽과 맥락적 장벽의 지각은 Holland 유형별로 진로결정과정과 관련된 개인 내적 변인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 내적 변인에는 내적 진로장벽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부 연구들(Gottfredson, 1981; Luzzo, 1996; Creed, Patton, & Bartrum, 2004)의 가정과는 달리, 맥락적 장벽의 지각이 모든 Holland 영역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진로장벽을 포함시킬 경우 Holland 유형에 따라 내적 진로장벽과의 상호관계를 통해서만 맥락적 장벽의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진로이론 및 상담실제에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Holland 진로유형에 따라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차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구체적인 진로결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에 대한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상담자는 아무리 다재다능하고, 진로결정의 과정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내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진로분야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특화된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면 특정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진로분야에 대한 내담자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진로분야별로 진로결정과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내적 진로장벽이나 맥락적 진로장벽이나에 따라 진로장벽의 영향에 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탐구형 진로결정과정을 살펴보면 내적 진로장벽만이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맥락적 진로장벽은 내적 진로장벽과의 상관 아래서만 진로결정변인에 관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담자는 맥락적 장벽에 대한 개입보다는 내적 진로장벽과 관련된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입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가 지각하고 있는 진로결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Holland의 RIASEC 유형의 활용 방식에 있어 일반적인 방식과 차이를 지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Holland 유형별 진로결정과정의 특

성을 실제 상담장면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Holland 유형은 다양한 진로분야를 단지 6개의 유형으로만 구분함으로써 각 유형간의 거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일 Holland 유형으로 개인의 진로성격 및 직무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특정 진로분야에서의 진로결정과정의 성격을 좀 더 세밀하게 검증하기에는 부적합한 접근방식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에 근거하여 실제 진로상담 장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 Holland 유형 검사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2개 또는 3개 유형의 조합으로 개인이나 진로의 특성을 설명해왔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다양한 진로분야에의 적용가능성과 진로분야에 따라 차별적인 진로결정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단일 Holland 유형의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및 진로결정의 관계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충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Holland 유형별 진로결정과정의 특성을 실제 상담 장면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실제 상담에의 적용을 목적으로 구체적이고 특화된 진로분야의 진로결정과정의 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추후 연구는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맥락적 진로장벽과 내적 진로장벽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각각의 진로장벽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이 진로결정과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부록 2에 제시된 상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Holland 유형에 따라 맥락적 진로장벽과 내적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들이 자기효능감, 진로흥미 및 진로결

정과 맺는 상관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진로분야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진로장벽의 요소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진로장벽의 요소를 좀 더 세분화시켜 각각이 서로 다른 진로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맥락적 진로장벽과 내적 진로장벽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진로장벽 검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진로장벽을 서로 다른 도구로 측정하였다.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과 관련된 국내 연구의 경우,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김은영, 2001)’, ‘여자 대학생용 진로장벽검사(손은령, 김계현, 2002)’, ‘한국대학생 진로결정장애검사(탁진국, 이기학, 2003)’ 등의 척도가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세 척도는 모두 진로장벽의 개념에 맥락적 진로장벽과 내적 진로장벽을 모두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각 척도의 진로장벽 하위유형의 개념을 살펴보면 척도마다 서로 다른 분류체계와 내용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척도들이 일부 제한된 유형의 맥락적 진로장벽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하위유형의 성격이 본 연구의 관심사인 특정 진로분야에서의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진로장벽과는 개념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맥락적 진로장벽에 보다 부합하는 Lent 등(2001)의 척도를 사용한 것이다. 반면 이 척도는 내적 진로장벽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내적 진로장벽을 따로 측정하기 위해 탁진국과 이기학의 척도(2003)의 내적 진로장

벽 측정문항을 사용한 것이다. 사회인지진로 이론은 진로장벽의 구인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로서 많이 활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이론에 근거하여 맥락적 진로장벽과 내적 진로장벽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추후 연구를 통해 개발된다면 각각의 진로장벽이 특정 진로분야에서의 진로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함께 살펴볼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1998). 직업선택도 검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공윤정 (2005). 진로장벽: 이론적 고찰 및 상담 실제에의 적용. *상담학연구*, 6(3), 861-974.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 (KCB)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박동열, 김태영 (2006). 대학생의 직업의식에 관한 실태. *직업교육연구*, 236(1), 1-32.
- 손은령 (2001). 진로 장벽연구의 동향과 후속 연구과제. *학생생활연구*, 28, 81-97.
- 손은령, 김계현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요인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21-139.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안창규, 안현의 (2003). *간편 진로코드 분류표*(11판). 서울: 한국가이던스.
- 양난미 (2006). 사회인지 진로 모형에 기초한 대학생의 진로선택 모형.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7(3), 835-847.
- 유나현, 박용두, 이기학 (2007). 사회인지진로 모형을 통한 Holland 예술형 직업선택과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361-375.
- 이상희 (2006). 진로발달에서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과 사회인지 이론의 검증. *상담학연구*, 7(4), 1123-1135.
- 황매향 (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중심으로 한 Holland 이론의 문화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53-666.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 Betz, N. E., & Hackett, G. (1983). The Relationship of Mathematics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the Selection of Science-Based College Maj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3(3), 329-45.
- Betz, N. E., Borgen, F. H., & Hannon, L. W. (1996). *Skills Confidence Inventory Applications and Technical Guid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Betz, N. E., Hannon, L. W., & Borgen, F. H. (1996). The Relationships of Self-Efficacy for the Holland Themes to Gender,

- Occupational Group Membership, and Vocational Intere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1), 90-98.
- Brown, S. D., Lent, R. W., & Gore, P. A. (2000). Self-rated abilities and self-efficacy beliefs: Are they empirically distinc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8, 223-235.
- Creed, P. A., Patton, W., & Bartrum, D. (2004). Internal and External Barriers, Cognitive Style, and the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of Focus and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4), 277-294.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Darcy, M., & Tracey, T. J. G. (2003). Integrating Abilities and Interests in Career Choice; Maximal versus Typical Assess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219), 218-237.
- Flore, L. Y., & O'Brien, K. M. (2002).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14-27.
- Fouad, N. A., & Smith, P. L. (1996). A test of a social cognitive model for middle school students: Math and sc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338-346.
- Fouad, N. A., Smith, P. L., & Zao, K. E. (2002). Across academic domains: Extensions of the social cognitive caree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164-171.
- Gushue, G. V., Clarke, C. P., Pantzer, K. M., & Scanlan, K. R. L. (2006). Self-Efficacy, Perceptions of Barriers, Vocational Identity, and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Latino/a High School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Alexandria, 54(4), 307-318.
- Gore, P. A., Jr., & Leuwerke, W. C. (2000). Predicting occupational considerations: A comparison of self-efficacy beliefs, outcome expectations, and person-environment congru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8, 237-250.
- Gottfredson, G. D.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Gysbers, N. C., Heppner, M. J., & Johnston, J. A. (2003). *Career counseling: Process, issues, and techniques*. (2nd ed.). New York, NY: Allyn & Bacon.
- Holland, J. L. (1985). *The Self-Directed Search: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1994).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 Suthakaranm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74-483.
- Lent, R. W., & Brown S. D. (2003). Re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hoice Beh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4), 458-65.
- Lent, R. W., Brown S. D., Nota, L., & Soresi, S. (2003). Testing social cognitive interest and choice hypotheses across Holland types in Itali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101-118.
- Lent, R. W., & Brown S. D., Sheu, H., Schmidt, J., Gloster, C. S., Wilkins, G., Schmidt, L. C., Lyons, H., & Treistman, D. (2005).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Academic interests and goals in engineering: Utility for women and students at historically Black universi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84-92.
- Lent, R. W., & Brown S. D. (2006). On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Social Cognitive Constructs in Career Research: A Measurement Guid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1), 12-35.
- Leong, F. T. L. (1993). The career counseling process with racial-ethnic minorities: The case of Asian American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 26-40.
- Lindley L. D. (2005). Perceived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3), p 271-287.
- Lindely, L. D., & Borgen, F. H. (2003). Generalized Self-Efficacy, Holland Theme Self-Efficacy,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3), 301-314.
- Luzzo, D. A. (1993). Ethnic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1(4), 227-36.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 239-248.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 130-149.
- McWhirter, E. H. (199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24-140.
- Rottinghaus, P. J., Larson, L. M., & Borgen, F. H. (2003).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and interests: a meta-analysis of 60 samp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2), 221-236.
- Swanson, J. L. (1993). Integrated assessment of vocational interests and self-rated skills and abili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 50-65.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4), 443-467.
- Tak, J.,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328-345.
- Tang, M., Fouad, N. A., & Smith, P. L. (1999).

- Asian Americans' Career Choices: A Path Model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1), 142-157.
- Tracey, T. J. G. (1997). The structure of interests and self-efficacy expectation: an expanded examination of the spherical model of interes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32-43.
- Tracey, T. J. G., & Hopkins, N. (2001). Correspondence of interests and abilities with occup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178-189.
- Quimby, J. L., & O'Brien, K. M. Predictors of Stud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mong Nontraditional College Wome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Alexandria: 52(4), 323-340.
- 원 고 접 수 일 : 2008. 2. 26  
수정원고접수일 : 2008. 4. 13  
게 재 결 정 일 : 2008. 5. 9

## **An Examination of Effect Models of Internal Career Barrier and Contextual Barrier on Korean Collag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es According to Holland's Interest Themes**

**Seokjoon Chun**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the influence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consisting of both internal career and contextual barriers on career-decision making processes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pursuit of career domains. 574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sub-factors of perceived contextual barriers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among career domains as defined by Holland's RIASEC themes. The perceived contextual barrier consisted of 3 sub-factors; material constraints, social influence, and discrimination. Perceived contextual barriers significantly influenced career related variables such as self-efficacy, career interest, and career decisions in all Holland themes but the paths of these variables differed according to Holland's themes.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both internal career barriers and contextual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e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Holland's RIASEC themes. Explanations for unexpected outcome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Contextual barrier, internal career barrier, Holland's RIASEC themes, Self-efficacy, career interest, career decision

부록 1. 맥락적 진로장벽 문항의 구조 계수 행렬

문항	1	2	3
25. 이 분야에서 요구하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아 가족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울 것 같다.	.604	.276	.104
35. 경제적 문제로 교육이나 진로 선택에 제약이 있을 것 같다.	.582	.543	.149
33. 이 전공 수업에 앞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컴퓨터 소프트웨어, 참고서적 등) 살 돈이 부족할 것 같다.	.572	.428	.156
26. 학부 이상의 추가적인 교육을 위한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565	.385	.084
17. 나는 이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거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 걱정된다.	.537	.167	.153
30. 다른 일이 너무 많아서 전공을 공부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514	.241	.332
34. 이 분야는 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490	.005	.121
24. 교수나 조교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힘들 것 같다.	.445	.318	.298
21. 이 분야의 공부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여가생활을 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435	.085	.077
28. 교수들이나 지도교수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다.	.364	.315	.271
20. 몇몇 교수들 혹은 강의 조교들은 강의를 어렵게 할 것 같다.	.339	.015	.193
16. 가족들은 나의 전공 선택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반대할 것이다.	.158	.700	.210
36. 부모님이나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전공을 바꾸라는 압력을 받을 것 같다.	.140	.600	.189
27. 친구들은 나의 전공 선택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반대할 것이다.	.218	.588	.295
22. 가족들이 공부보다는 돈을 벌어오라는 압력을 줄 것 같다.	.379	.498	.220
19. 내 출신지역으로 인해 차별을 당할 것 같다.	.174	.238	.733
29. 내 출신지역 때문에 이 전공 내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다.	.161	.221	.724
32. 내 성별 때문에 이 전공 내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다.	.258	.330	.551
23. 성별로 인해 차별을 당할 것 같다.	.306	.247	.510

부록 2.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개별 Holland 유형별 변인의 상관

현실형	1	2	3	4	5	6	7	8	9	10
1	1	.223**	.286**	-.046	-.045	-.072	-.106*	.005	-.019	.045
2	.223**	1	.530**	-.155**	-.106*	-.182**	-.298**	-.186**	-.153**	-.049
3	.286**	.530**	1	-.105*	.002	-.148**	-.139**	-.034	-.049	.080
4	-.046	-.155**	-.105*	1	.368**	.304**	.435**	.402**	.318**	.085*
5	-.045	-.106*	.002	.368**	1	.323**	.301**	.310**	.255**	.179**
6	-.072	-.182**	-.148**	.304**	.323**	1	.233**	.225**	.176**	.104*
7	-.106*	-.298**	-.139**	.435**	.301**	.233**	1	.507**	.502**	.241**
8	.005	-.186**	-.034	.402**	.310**	.225**	.507**	1	.551**	.354**
9	-.019	-.153**	-.049	.318**	.255**	.176**	.502**	.551**	1	.327**
10	.045	-.049	.080	.085*	.179**	.104*	.241**	.354**	.327**	1
탐구형	1	2	3	4	5	6	7	8	9	10
1	1	.277**	.305**	-.042	-.036	-.020	.001	.030	.034	.048
2	.277**	1	.578**	-.207**	-.127**	-.100*	-.214**	-.155**	-.072	-.023
3	.305**	.578**	1	-.095*	-.037	-.048	-.062	-.071	.012	.101*
4	-.042	-.207**	-.095*	1	.368**	.304**	.435**	.402**	.318**	.085*
5	-.036	-.127**	-.037	.368**	1	.323**	.301**	.310**	.255**	.179**
6	-.020	-.100*	-.048	.304**	.323**	1	.233**	.225**	.176**	.104*
7	.001	-.214**	-.062	.435**	.301**	.233**	1	.507**	.502**	.241**
8	.030	-.155**	-.071	.402**	.310**	.225**	.507**	1	.551**	.354**
9	.034	-.072	.012	.318**	.255**	.176**	.502**	.551**	1	.327**
10	.048	-.023	.101*	.085*	.179**	.104*	.241**	.354**	.327**	1
예술형	1	2	3	4	5	6	7	8	9	10
1	1	.215**	.242**	.075	.099*	.062	.053	-.046	-.101*	-.003
2	.215**	1	.486**	-.005	-.004	.060	-.167**	-.072	-.141**	-.051
3	.242**	.486**	1	.024	.037	.025	-.028	-.009	-.049	-.036
4	.075	-.005	.024	1	.368**	.304**	.435**	.402**	.318**	.085*
5	.099*	-.004	.037	.368**	1	.323**	.301**	.310**	.255**	.179**
6	.062	.060	.025	.304**	.323**	1	.233**	.225**	.176**	.104*
7	.053	-.167**	-.028	.435**	.301**	.233**	1	.507**	.502**	.241**
8	-.046	-.072	-.009	.402**	.310**	.225**	.507**	1	.551**	.354**
9	-.101*	-.141**	-.049	.318**	.255**	.176**	.502**	.551**	1	.327**
10	-.003	-.051	-.036	.085*	.179**	.104*	.241**	.354**	.327**	1

부록 2.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개별 Holland 유형별 변인의 상관 (계속)

사회형	1	2	3	4	5	6	7	8	9	10
1	1	.075	.153**	.030	.044	.042	.098*	.101*	.011	.029
2	.075	1	.420**	-.084*	-.083*	-.052	-.249**	-.174**	-.213**	-.092*
3	.153**	.420**	1	-.080	-.048	-.060	-.218**	-.124**	-.166**	-.150**
4	.030	-.084*	-.080	1	.368**	.304**	.435**	.402**	.318**	.085*
5	.044	-.083*	-.048	.368**	1	.323**	.301**	.310**	.255**	.179**
6	.042	-.052	-.060	.304**	.323**	1	.233**	.225**	.176**	.104*
7	.098*	-.249**	-.218**	.435**	.301**	.233**	1	.507**	.502**	.241**
8	.101*	-.174**	-.124**	.402**	.310**	.225**	.507**	1	.551**	.354**
9	.011	-.213**	-.166**	.318**	.255**	.176**	.502**	.551**	1	.327**
10	.029	-.092*	-.150**	.085*	.179**	.104*	.241**	.354**	.327**	1
진취형	1	2	3	4	5	6	7	8	9	10
1	1	-.023	.099*	-.007	-.011	-.009	-.048	-.100*	.002	-.092*
2	-.023	1	.450**	-.168**	-.079	-.112**	-.417**	-.257**	-.318**	-.131**
3	.099*	.450**	1	-.146**	-.113**	-.086*	-.398**	-.149**	-.157**	-.172**
4	-.007	-.168**	-.146**	1	.368**	.304**	.435**	.402**	.318**	.085*
5	-.011	-.079	-.113**	.368**	1	.323**	.301**	.310**	.255**	.179**
6	-.009	-.112**	-.086*	.304**	.323**	1	.233**	.225**	.176**	.104*
7	-.048	-.417**	-.398**	.435**	.301**	.233**	1	.507**	.502**	.241**
8	-.100*	-.257**	-.149**	.402**	.310**	.225**	.507**	1	.551**	.354**
9	.002	-.318**	-.157**	.318**	.255**	.176**	.502**	.551**	1	.327**
10	-.092*	-.131**	-.172**	.085*	.179**	.104*	.241**	.354**	.327**	1
관습형	1	2	3	4	5	6	7	8	9	10
1	1	-.009	.079	-.028	-.048	-.016	-.022	-.016	.056	-.019
2	-.009	1	.484**	-.097*	-.085*	.005	-.078	-.100*	-.056	-.046
3	.079	.484**	1	-.071	-.027	.054	-.006	-.048	.061	-.014
4	-.028	-.097*	-.071	1	.368**	.304**	.435**	.402**	.318**	.085*
5	-.048	-.085*	-.027	.368**	1	.323**	.301**	.310**	.255**	.179**
6	-.016	.005	.054	.304**	.323**	1	.233**	.225**	.176**	.104*
7	-.022	-.078	-.006	.435**	.301**	.233**	1	.507**	.502**	.241**
8	-.016	-.100*	-.048	.402**	.310**	.225**	.507**	1	.551**	.354**
9	.056	-.056	.061	.318**	.255**	.176**	.502**	.551**	1	.327**
10	-.019	-.046	-.014	.085*	.179**	.104*	.241**	.354**	.327**	1

\* p<.05, \*\* p<.001

1. 진로결정, 2. 자기효능감, 3. 진로흥미, 4. 물질적 제약, 5. 사회적 영향, 6. 차별, 7. 우유부단한 성격, 8. 직업정보 부족, 9. 자기명확성 부족, 10. 진로결정필요성인식 부족